

100년의 역사를 품은 부산의 학교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

Chronicles of a Century: A History of Busan's Schools

부산교육역사관 개관 기획전 <100년의 역사를 품은 부산의 학교,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를 소개합니다.

1895년 부산개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부산의 100년 이상된 학교는 초·중·고 포함하여 총 39개교입니다. 이 학교들이 처음부터 100년을 이어가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를 지켜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란 부제의 의미는 일제 강점기와 피란수도를 거친 역사적 현실 앞에 교육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부산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긍정의 해석이며 동시에 부산의 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100년 후 미래를 상상하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는 학교가 남긴 '기록', 학교가 가진 '기념' 그리고 학교를 스쳐간 사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지 100년 이상된 부산의 학교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100년의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통해 오랜 시간 학교가 남긴 흔적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의 학교를 회상하는 기회가 될 기대합니다.

Welcome to Chronicles of a Century: A History of Busan's Schools, the inaugural exhibition of the Busan Education History Museum.

Starting from the founding of the Busan Gaesung School (now Gaesung High School) in 1895, there are thirty-nin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Busan that are more than a century old. These schools never lost hope, eve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or while Busan served as the provisional capital during the Korean War, and eventually survived into the present day. This exhibition explores the various records created by these schools over the course of a century or more.

The exhibition presents the records left by the schools, commemorations of the schools, and the memories of people affiliated with them. Just an introduction of these Busan schools more than a hundred years old could never cover the entirety of their century-long history, but it is hoped that visitor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discover the traces left by the schools over the years and recall their own school memories.

이용안내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09:00-12:00, 14:00-17:00
*입장마감 16:00

관람 및 체험예약

부산교육역사관 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예약 인원 결원 시 현장 입장 가능하나 체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관일

월요일 및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입장료

무료

*상기 내용은 부산교육역사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역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역사관
(49368) 부산시 사하구 옥천로130 (감천동)
051 711 5844
behm.pen.go.kr

Visitor Information

Opening Hours

Tuesday-Sunday 09:00-12:00, 14:00-17:00
*last entry 16:00

Reservations for Visits

Advance booking via the Busan Education History Museum website is necessary
*Online reservations are not accepted on the day of visit. In the case of vacancies, you may be admitted on-site, but there may be limitations to participation in the experience programs.

Closed on

Mondays and public holidays

Admission Fees

Free

*The above information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museu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museum website.

Busan Education History Museum
130, Okcheon-ro, Saha-gu, Busan (Gamcheon-dong)
051 711 5844
behm.pe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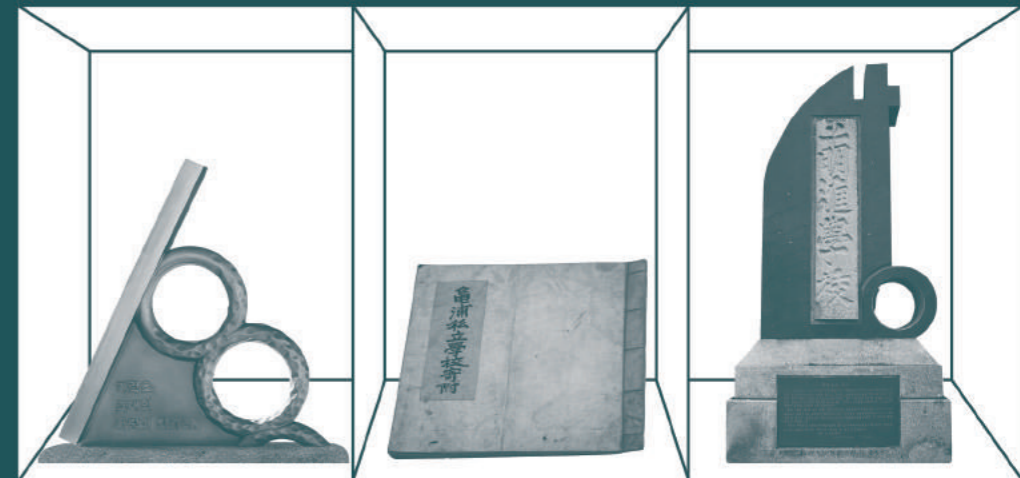
개관 기획전



100년의 역사를 품은 부산의 학교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

Chronicles of a Century: A History of Busan's Schools



2024. 03. 12. - 2025. 01. 26.

2층 기획전시실 2F Special Exhibition

1 기록하는 학교, 지켜내는 학교

Schools that Record,
Schools that Safeguard

학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제강점기, 비록 우리의 말과 글이 아닌 일본어와 한자로 채워진 기록이지만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고, 학교가 남긴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통해 긴 시간 부산교육이 이어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사진 #졸업증서

격동의 시기 기록으로 확인하는 학교

공립동래보통학교는 1910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당시 졸업명부를 살펴 보면 졸업생은 20명으로 나이는 11세부터 18세까지 같은 학년의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현재와 차이가 있다. 또한 개교 당시에는 남자부만 있었고, 1912년부터 여자부가 신설되었다.



내성초등학교 _ 1907년 개교
공립동래보통학교 1회 송별기념, 1910, 학교 소장
Dongnae Public Primary School Graduation Photos



#학교이름 #석주

소학교 → 보통학교 → 심상소학교 → 국민학교 → 초등학교

사립명진학교 설립 당시 학교 교문에 세워 둔 2개의 석주 중 한 개를 발견하여 기념비로 제작하였다. 석주의 윗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私事'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없지만 남겨진 단어를 통해 '사립명진학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상초등학교 _ 1918년 개교
사립명진학교 석주 私立明進學校石柱
1986, 학교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진 제공
Stone Pillar of Private Myeongjin School

#기록 #전승

교육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는 학교

사립구명학교 설립 취지문과 26명의 발기인(發起人) 및 기부자 명단이 기록된 서책이다. 1906년 11월 지방 유지들의 기부금을 통해 1907년 10월 15일 '사립구명학교'가 설립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구포초등학교 _ 1907년 개교
구포사립학교 기부 龜浦私立學校寄附
1906년, 구포초등학교총동창회 소장
Aim of Establishing Gupo Private Gummyeong School

2 학교의 상징, 기념하는 학교

Symbols of Schools,
Schools that Commemorate

한 세기 동안 학교의 모습은 수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랜 역사가 깃든 학교만이 가진 상징적이며 기념비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랜 전통과 기념비적인 사건들로 학교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래고등학교 _ 1898년 개교
동고의 날, 1962, 학교 소장
Memory of Busan Anti-Japanese Student Movement

#학교정원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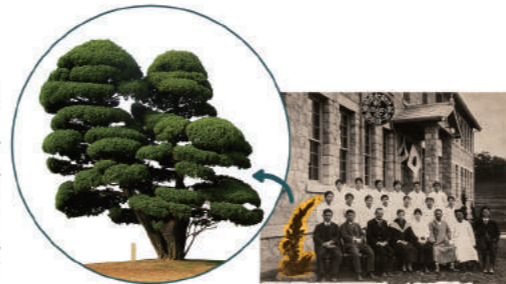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기며 나누는 학교

동래고등학교의 개교기념일과 부산항일학생운동을 동시에 기념하기 위해 1962년 제정한 축제이다. 초기에는 마라톤, 체육대회 개최로 체력 단련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이벤트, 학예전을 개최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부산항일학생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교목 #특별활동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

사립일신여학교 1회 졸업기념으로 식수한 향나무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몇 차례 학교를 이전·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목 향나무를 이식하여 관리하였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기 험난한 시기를 함께 이겨낸 학교법인 동래학원의 기념비적인 교목이다.



동래여자중고등학교 _ 1895년 개교
1회 졸업기념, 교목, 1926/2023, 학교법인동래학원 소장
Pictures and Trees to Commemorate the First-year Graduation

#수집 #등창회

100년을 맞이한 우리 학교

100주년 기념탑 형태의 의미는 크게 사람[人]을 중심으로 [∞] 무한대의 졸업생이 사람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졸업생은 앞으로로도 계속된다는 의미로 [∞] 무한결합의 뜻을 표현하였다.

- 가락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소개글 일부 발췌

가락초등학교 _ 1923년 개교
100주년 기념탑, 2023, 학교 소장
Monument for School's 100th Anniversary



3 기억하는 학교, 추억하는 우리

Schools that Remember,
We Who Reminisce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학생과 선생님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듯이 학생과 선생님의 흔적을 통해 확장 시절 지나온 삶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리움 #소망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학교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록이 남아있다. 학교 일정 또는 퇴근 후의 일상적인 이야기, 신문 또는 잡지에서 본 인상적인 글귀를 기록해 두어 각 시대별 부산지역 교사의 삶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이다.



내성초등학교 _ 1907년 개교
김해영 선생님 일기장, 1960년~2000년대, 학교 소장
Notebook of Teacher Kim Hae Young



낙민초등학교 _ 1912년 개교
타임캡슐, 2012/2023, 학교 소장
Time capsule

타임캡슐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물건이나 메시지를 담아 봉인하는 것이다. 낙민초등학교는 2000년대부터 졸업생을 대상으로 타임캡슐을 봉인하고 있다. 타임캡슐을 언제, 어떻게 봉인 해제할지 아직 정해두진 않았다.

#기록 #전승

교육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는 학교

사립구명학교 설립 취지문과 26명의 발기인(發起人) 및 기부자 명단이 기록된 서책이다. 1906년 11월 지방 유지들의 기부금을 통해 1907년 10월 15일 '사립구명학교'가 설립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구포초등학교 _ 1907년 개교
구포사립학교 기부 龜浦私立學校寄附
1906년, 구포초등학교총동창회 소장
Aim of Establishing Gupo Private Gummyeong School

6학년 여학생 일기장이다. 어머니를 도와 밥 짓는 이야기부터 선생님께 혼날까 숙제를 했다는 초등학생의 소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남녀 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인상적이다.

기장초등학교 _ 1911년 개교
일기장, 1969년 학교 소장
Diary

